

News

잔금대출 조이기 나선 시중은행...실수요 위주로 대출

이데일리

시중은행들, 잔금대출 한도 산출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 이내'로 바꿔 축소하려는 움직임

하나은행, 지난달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 신한은행, 분양 아파트 현 시세 기준 한도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

'로봇 은행원' 시대 열렸다...신한은행, 업계 첫 '지점봇' 운영

이코노미스트

신한은행, RPA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특정 영업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자동화 구현하는 사업 진행

향후 지점봇의 영업점별 자동화 가능 업무 범위 넓히고, 자동화 프로세스 고도화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중소기업 대출만 부실 확대...코로나 리스크 '고개'

데일리안

올 상반기 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개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분류 금액 총 6조 1,318억원... 지난해 말보다 5.9% 감소

중소기업 대출 관련 고정이하여신은 1조 9,416억원...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 맞았기 때문

은행권에 채찍 들던 금융당국, 당근책 내민 까닭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사 검사, 제재 TF 검토 결과를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 정은보 금감원장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 지향"...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할 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

최근의 시장친화적 정책 발표는 무너진 금융시장 신뢰 회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 금융사의 수익성 제고 목적 타사업 진출 적극 허용도 동일 배경으로 해석

신한·카카오도 가세... '디지털 보험' 출혈 경쟁 예고

이코노미리뷰

디지털 보험사 설립 추진 증가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출범을 연내 본허가 목표... 실질적인 보험업계 데워는 내년 1분기쯤으로 예상

신한금융지주 또한 카디프손해보험 지분 인수 완료 후 디지털 손보사 지향하는 청사진 구상... 하나손보는 디지털 특화 채널 강화 및 확대 작업 진행 중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 고소득층·MZ세대 전용 보험 나온다

한국일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특정 종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나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 등 다양한 형태 업체 등장 가능성

해외에서는 한 금융사가 다양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가 많아... 업계 관계자 "소비자가 느끼는 보험 상품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

희비 갈리는 IPO 빅3... 체면 구긴 NH·미래, 짝꿍 터뜨린 한투

머니투데이

올해 IPO 공모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 16개... 이 중 미래에셋, NH, 한투가 상당수 차지

다만 업종별 쏠림 현상 심화로 주관사들의 성과 희비교차... 미래에셋증권, 크래프톤 부진으로 일부 빅딜 차질... NH투자증권, SK바이오사이언스 외 괄목할만한 성과 부재

금융위 '라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융·KB증권 중징계 제재안 상정 앞뒀

조선비즈

금융위, 오는 10일 정례회의 열고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한 상정 계획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가 징계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